

현대차, 美 현지공장 건설 박차... IRA 대응 두 팔 걷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현대차·기아 지난달 미국 판매량
13만5526대로 전년비 17.7% ↑
IRA 영향 친환경차 103.9% 증가

미국공장, 2024년 10월 조기완공
연산 30만대, 2025년 50만대 계획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 내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북미 친환경차 시장 공략에 고삐를 쥔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라 현지 생산 공장 조기 완공 등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판매를 이어갈 방침이다.

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의 지난달 미국 판매량이 13만5526대로 작년 동월 대비 17.7% 증가, 역대 최대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판매량이 증가한 것은 올해 2월 이후 6개월 만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뉴스

다. 특히 월간 최대 판매량이자 역대 8월 기준으로도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

특히 현대차·기아는 지난달 미국에서 총 1만4903대의 친환경차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79.3%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IRA 영향을 받는 전기차는 103.9% 급증한 4078대가 팔렸다.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가 각

각 1516대, 1840대를 팔렸고, 제네시스의 전용 전기차 GV600이 지난 5월 판매 개시 이후 월간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다만 이같은 성장세는 미국 IRA 시행 이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점유율

2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는 IRA 시행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종에서 제외됐다. 해당 차량의 가격이 최대 1000만원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에선 사실상 시장경쟁력을 상실해 판매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현지 생산 공장 건설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차는 오는 2024년 10월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을 연산 30만대로 조기 완공한 뒤 2025년 연산 20만대를 증설해 총 50만대 생산체제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로 한국산 미국 수출 전기차가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지아 전기차 공장의 생산량을 최대한 빠르게 늘려 대응하려는 것이다.

일본 토요타도 전기차배터리 생산을 목표로 미국과 일본에 약 7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미국의 IRA 시행

으로 현대차그룹이 타격을 입은 사이, 전기차 경쟁에서 밀린 일본 업체들이 빠른 추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토요타의 이번 투자는 미국 및 일본에서 최대 총 '40GWh'급 생산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미국의 IRA 도입 확정에 대응해 미국 현지 투자를 가속화하는 행보다. 물론 토요타 생산 시스템(TPS)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생산 라인을 구축함으로써 토요타자동차에 대한 글로벌 마켓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배터리 생산에 종사하는 인재육성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미국 정부가 지난달 16일부터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현대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탈락한 것과 달리, 일본은 입법 전부터 강력한 '미국 경제 로비'를 통해 일본 기업에 불리한 조항을 빼는데 성공했다. 현대차는 주요 자동차 생산국 브랜드 가운데 미국 정부에서 단 1개 친환경차 모델도 보조금을 못 받는 유일한 업체가 됐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코로나 '안전 백신' 선택지 확장... 오미크론 백신도 도입

백신종류 화이자·노바백스 등 6종
SK바사 '스카이코비원' 접종 시작
61만회 분 출하...1천만 도즈 공급기로

모더나, 기존 코로나에 변이 표적
'스파이크박스 2주' 4분기 도입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우선접종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백신 종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변이 바이러스에 특화된 백신들도 곧 도입된다. 그동안 안전성 우려와 변이 대응 미흡 등을 이유로 백신을 기피해왔던 사람들 역시 접종을 고려해볼 수 있게 됐다.

◆안전한 백신 선택지 넓힌다

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5일부터 국내에서 접종 가능한 코로나19 백신 종류가 화이자(성인·소아용), 모더나, 안센,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까지 총 6종으로 늘어난다.

우선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원'의 접종이 시작된다. 전국 보건소나 일부 위탁의료기관을 당일 방문하면 5일부터 스카이코비원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당일 접종이 가능한 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 이날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스카이코비원에 대한 사전예약이 시작됐다. 사전예약분에 대한 접종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미 출하를 마친 스카이코비원 초도 물량은 61만회 접종분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질병관리청의 접종 계획에 따라 1000만 도즈를 순차적으로 국내에 공급할 계획이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권기창 안동시장, 김형동 국회의원,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강기운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왼쪽부터)이 지난 2일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생산시설 'L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1호 백신 '스카이코비원' 출시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카이코비원은 인플루엔자, B형간염, 자궁경부암 백신 등에 활용된 합성항원 플랫폼이 적용되며 장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백신 안전성 우려로 접종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백신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스카이코비원 백신은 기존 백신에 비해 중화항체 값은 2.9배 높고 이상반응도 대부분 미미한 정도"라며 "18세 이상 성인 중 아직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국산 백신 접종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5일부터 만 12~17세 청소년에 대한 노바백스 백신 사전예약과 당일접종도 시작된다. 이제까지 청소년은 화이자 개발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 코로나19 백신만 접종할 수 있었다. 기존 노바백스 백신은 만 18세 이상에만 접종돼 왔다.

노바백스 백신 역시 스카이코비원과

같은 합성항원 방식으로, 이제까지 국내 노바백스 백신의 이상반응 신고율은 0.14%로 전체 신고율(0.37%)보다 낮다.

◆변이 잡는 백신 도입 '본격화'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유행의 우세종인 변이 바이러스(BA.5)에 대한 백신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모더나의 2가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박스 2주'가 '코로나19 백신 안전·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모더나 2가 백신은 국내 최종 허가를 거쳐 4분기 접종이 시작될 전망이다.

모더나에 따르면 스파이크박스 2주는 기존에 사용해온 모더나 코로나 19 백신과 오미크론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백신 후보 물질을 결합한 차세대 2가 백신이다.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기하평균역가(GMT)를 기준 수준보다 약 8배 높였다.

지난 1일 유럽 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위원회(CHMP)는 스파이크박스 2주에 대한 조건부 판매 승인을 권고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역시 지난달 31일 변이 바이러스에 맞춰 개량한 모더나·화이자 백신을 긴급승인한 바 있다.

화이자 개발한 2가 백신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화이자사의 BA.4, BA.5 변이 백신이 개발되면 한국에 도입할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돼 있다"며 "BA.4, BA.5 백신의 효과성, 안전성에 대해 식약처, 전문가 협의를 거쳐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도입된 2가 백신은 60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 등 입소자·종사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우선 접종한다. 접종 간격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추가 접종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종 접종일 또는 확인일 기준 4~6개월 이후다.

/이세경 기자 seilee@

>> 1면 '빨간불 켜진 경제성장률'서 계속

"하반기 국제유가 상승 글로벌 경기 둔화에 무역적자 이어질 것"

다만 하반기까지 민간소비가 높은 수준을 이어갈지는 확신할 수 없다.

◆"물가 상승·소비 둔화 우려"

특히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면서다. 특히 수출효자 품목인 반도체 등의 추이도 심상치 않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7.8% 감소한 107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6월(-0.03%) 이후 26개월 만에 첫 역성장이다.

윤용준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차장, 박동현 과장 등은 한은 블로그에 게시된 '최근 무역수지 적자 원인 및 지속가능성 점검'을 통해 "무역수지 변화율 수출입의 단가와 물량요인으로 구분해 보면, 최근 무역적자 대부분은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나타났다"며 "중국의 경기둔화 등에 따른 수출물량 축소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올해 하반기에도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무역적자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내다봤다.

관건은 하반기다. 하반기 수출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물가 상승 여파로 인한 소비 둔화까지 더해질 전망이다.

전국연구하나증권 연구원은 "2분기 GDP가 전기비 0.7% 성장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 민간 소비가 호조를 보이고 정부 지출이 뒷받침하면서 내수 주도의 성장을 시현했다"고 설명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